

# 광주시교육청 '달빛 역사동맹' 본격 추진

### 대구와 학생교류·교원 직무연수 등 이정선 교육감, 옛 대구감옥터 참배

광주시교육청이 '달빛 역사동맹'을 본격 추진한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역사교육 협력방안이다. 항일 의병투쟁, 학생독립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양 지역이 공유한 역사를 특화한 교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2일 한말 호남의 병장들이 순국한 옛 대구감옥 터(현 삼덕교회)를 찾아 헌화, 참배했다.

대구감옥은 일제 침탈이 본격화한 1910년대 심남일, 안규홍 등 호남의병 43명이 사형을 당한 역사적 현장이다. 광주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주요 인사 151명이 수감돼 모진 고문을 받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교육감은 호남기관장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대구 감옥을 참배했다. 시교육청 직원들도 동행했다. 이 교육감 일행은 삼덕교회 입구에 설치된 대구형무소 상정 조형물 앞에서 순국 의병장과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기리며 헌화·복념했다.

상정조형물은 옛 대구감옥과 대구형무소 때 사용된 붉은 벽돌로 만든 벽면으로, 호남 의병장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교육감은 "한말 의병과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항일 애국지사들이 숨지거나 모진 고초를 겪은 역사 현장을 이제야 참배하게 돼 만사지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역사 직무연수 현장으로 자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옛 대구감옥 터(현 삼덕교회)를 찾아 참배한 뒤 선열들의 삶을 기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 교육감은 특히 광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협력해 달구벌과 빛고을의 역사교육 협력방안인 이른바 '달빛 역사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전주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만나 양 지역의 역사교육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대구의 2·28 학생운동, 국제보상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을 상호 연계하는 현장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남도지역 항일운동과 인연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역사현장을 답사하는 교원 역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점차 양 지역의 학생 교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정선 교육감이 참배한 옛 대구감옥 뿐 아니라 광주학생독립운동 주요 인사들이 출옥 후 사진 촬영한 대구 달성공원,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모자로 옥고를 치른 김보섭 선생의 고향인 안동 지역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 '대구에서 바라본 광주학생독립운동'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청소년 창의력 증진 '하이파이브 챌린지'

### 전남도교육청, 넥슨-초등컴퓨팅교사협회와 업무협약

전남교육청이 유관 기관과 손잡고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인 '하이파이브 챌린지(High-5ive Challenge)' 확산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목포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재)넥슨, (사)초등컴퓨팅교사협회와 '하이파이브 챌린지(High-5ive Challenge)'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노블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 소설공학)과 레고브릭 및 스파이크 등을 결합해 5개의 가치 역량(표현, 예술, 상상, 꿈, 변화)을 신장시키는 학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노블 엔지니어링'이란 미국 터프트 대학에서 개발한 융합교육 방법으로 동화나 소설 등에서 주인공이 구조물 제작, 코딩 등의 방법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응용했다.

세 기관은 '하이파이브 챌린지' 가치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재)넥슨재단은 2년 간 약 370만개 브릭을 지리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초등학교 400학급(1만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사)초등컴퓨팅교사협회는 하이파이브 챌린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 멘토링 지원,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 지역 학생들에게 소의 받지 않고 즐겁게 배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좋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력을 높여야 전남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이번 협약처럼 사회적 기업·교육기관·교사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학생들에게 적극 지원하는 성공적인 교육모델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조선대 동북아연, 20억 규모 인문지원사업 선정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인문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소장 기광서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동북아연구소·사진)가 최근 2022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북아연구소는 앞으로 6년(3+3)간 연구비 총 20억원을 지원받아 러시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전망이다.

동북아연구소가 제출한 연구사업 주제는 '러시아 기록보존소 소장 한국현대사 자료 수집·해제·번

역·DB구축'이다. 이는 1990년대 한·소 수교 이후 공개된 한국현대사 관련 러시아기록보존소 10여 곳의 자료 DB화를 추진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간 러시아 한국학 자료는 한국현대사 서술을 수정·보완하고, 특히 북한사 서술에 있어서 핵심자료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DB가 없어 이를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동북아연구소는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한국현대사 관련 문서자료뿐 아니라 문화예술 자료, 영상 사진 음성 등의 비텍스트 자료 등 대상 자료 수집 범



위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분과학문적·융합학문적 연구에 활용할 방침이며 관련 학문 분야 발전과 연구인력 양성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기광서 교수는 "조선대 동북아연구소는 그간 호남지역에서 동북아 연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동북아 연구 관련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동북아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국가교육위원 임명... 교육정책 개발

장석웅(사진) 전 전남교육감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임명돼 교육정책 등을 개발하는 활동을 펼친다.

국교위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27일 공식 출범한다. 장 전 교

육감을 비롯해 비상임위원 등으로 임명된 19명의 위원 임기는 3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국교위는 정권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뒤집히는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돼 구성됐다.

새로운 교육과정 심의와 2028년부터 적용을 앞둔 대입제도, 학제개편, 교원수급정책 등 중장기 교



육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교위에 이름을 올린 장 전 교육감은 광주고등학교, 전남대 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중학교 교사, 전교조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통해 전남교육감에 당선돼 2022년 6월까지 전남교육을 이끌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동신대, 치매 조기발견기술 공동 개발 나선다

### 마산대·춘해보건대 LINC3.0 사업단과 공유·협업 협약

동신대학교 LINC3.0사업단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분석 기술 개발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신대 LINC3.0사업단(단장 최효승 교수)은 최근 마산대학교 LINC3.0사업단, 춘해보건대학교 LINC3.0사업단과 마산대 국제회의실에서 '특화 분야 ICC 간 공유·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특화분야 ICC 간 공동제품개발 ▲기업지원사업 협업 ▲취업·창업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치매 조기 선별 및 개선을 위한 양안시 기능, 안구운동 분석 기술개발'을 산학협력공동 기술개발과제로 채택하고 오는 2025년 2월까지 공동 개발에 나선다.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인 치매를 양안시 기능 검사와 안구운동 분석을 통해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항노화 기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특화 분야 ICC 간 공유·협업 협약



동신대 안경광학과 전인철 교수와 의료용 안광학의료기기 제조업체 (주)휴비츠가 참여해 핵심 기술 개발에 힘을 모은다.

최효승 동신대 사업단장은 "각 대학의 전문분야 협업, 거점 지역 간 공유·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